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일(금)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극상을 모두 석권하며
이 시대 우리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연극
- 4.15~17 인천문화예회관 스테이지149_연극선집 <붉은낙엽> -**

★★★★★

제42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제14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제58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

인천광역시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스테이지149 ‘연극선집’의 일환으로 극단 배다의 연극 <붉은낙엽>을 초청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스테이지149 ‘연극선집’은 공연예술의 브랜드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기획됐으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현 시대 트렌드를 선도하는 연극 작품들을 선정해 관객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간 연극 <백석우화>(2016),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2017), <위대한

놀이>(2018), <손님들>(2018), <해방의 서울>(2019) 등 정통 연극의 명맥을 잇는 작품들을 소개하며 지역 문화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켜 왔다.

2022년 스테이지149 ‘연극선집’ 으로 선정된 작품은 극단 배다의 연극 <붉은낙엽>이다.

제58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을 비롯해 제14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과 제42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며 2021년 대한민국 대표적 연극상을 모두 석권한 작품이다.

극단 배다의 이준우 연출과 김도영 작가(각색)는 2020년에도 연극 <왕서개 이야기>로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희곡상을 수상한 조합으로 연극 <붉은 낙엽>으로 또다시 만나 대한민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젊은 명콤비임을 입증했다.

“의심이 만든 균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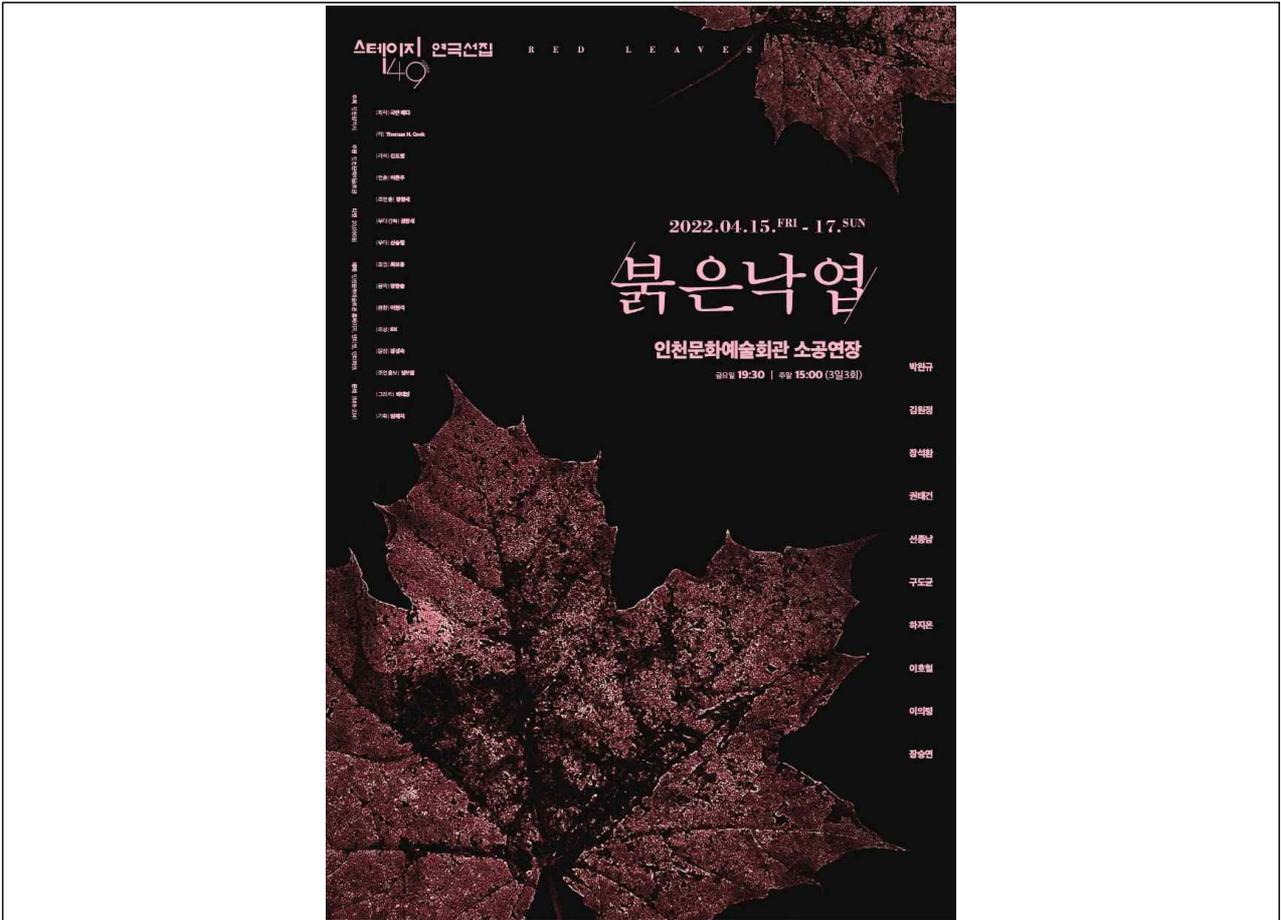
연극 <붉은낙엽>은 미국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 토마스 쿡의 소설 『붉은 낙엽(Red Leaves)』을 원작으로 탄생했다.

더 나은 삶과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아버지가 이웃집 소녀 실종 사건 용의자로 자기 아들이 지목되면서 흔들리는 과정을 그린다.

빠른 전개와 천재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의심’에 관한 대서사시를 완성했다.

각색자 김도영은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한 <왕서개 이야기>를 비롯해 <알마게스트>,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심야 정거장> 등의 희곡들을 저술했다.

<불임> 관련 포스터 및 공연 사진



포스터 이미지



공연사진



공연사진